

2) 히위 족속이 디나와의 혼인을 협상하다 (34:5-24)

5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6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7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라
 8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9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10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11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12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 34:5/ '더럽혔다': * 제의적 용어. 부도덕한 성관계는 당사자들을 도덕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었으며, 공동체 전체를 오염.
 - 디나가 간음한 여인처럼 되었고 이는 야곱 집안 전체에 영향을 미침.
 '잠잠하였고': 야곱의 침묵은 하몰, 그의 아들들의 반응과 대조를 이룸 - 야곱의 통제력 상실을 의미.
- 34:6/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 하몰의 능동적 역할은 침묵을 지키는 야곱과 대조.
 - 그러나 세겜의 범죄 사실과 배상을 말하지는 않고 있음.
- 34:7/ '야곱의 아들들은... 심히 노하였으니': * 하몰과 세겜이 간청할 때 형제는 조용히 격분.
 - 돌아오는 길에 복수를 계획하였을 가능성.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웃 족속과 구별된 정체성이 이미 확립되었음.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라': 야곱은 정조를 잃은 처녀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어야 함.
- 34:8/ '너희 딸': 하몰은 야곱의 아들이 디나에게 부모의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
 '연연하니(하사크-기울다)': 애정 어린 열망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 하몰은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려 함.
- 34:9-10/ '통혼하여... 매매하며... 기업을 얻으라': * 정착하게 하고 공동체와 교역으로 이익을 누리기를 권함.
 - 통혼을 통해 세겜 사회에 동화되기를 원함; 율법으로 금지.
- 34:11-12/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자신을 낮추는 공손한 표현.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과도하게 후한 제안에 해당.

13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14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15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16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17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 34:13/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 대답하였으니': 형제의 항의는 복수를 위한 계약이며 정당하지 않음.
 세겜의 행위는 악한 것이지만 암논과 대조적인 행동을 나타냄.
- 34:14-17/ '수치가 됨이라': 할례 받지 않은 종족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들의 종족 유산에 어긋난다는 의미.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에 드러난 말. 그러나 이들은 계약으로 이말을 함.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데리고'는 '취하다(강간하다, 혼인하다)'와 같은 단어로써 언어 유희.

18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19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 34:18-19/ '좋게 여기므로': 세겜은 아내를 얻었고 하몰은 사업에 이익이 생길 것을 기대.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으로 달려감.
 * 세겜의 디나를 향한 열망을 반영 / 세겜이 주민에게 신망을 얻고 있었음.
 * 야곱의 아들들의 비열한 성품에 비해 순수한 열정을 지닌 어린 소년으로 묘사.

20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21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22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23 그러면 그들의 가족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24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 34:20-21/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구동성으로 성읍 사람들에게 진술.
 '친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해한 성향에 대해 보고하여 잠재적인 두려움을 누그러뜨림.
 '용납할 만하니': 공간이 넓어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
 '매매하게 하고': 교역으로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을 보여줌.
- 34:22-23/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수익이 큰 합의에 유일한 장애가 할례라는 관습임을 말함.
 '그러면 그들의 가족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 할례라는 고통을 감수할만한 엄청난 이익이 있을 것을 보장.
- 34:24/ '모든 자가... 듣고': 만장일치로 합의.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모든 성인 남성이 할례를 받음.
 - 순진하게 신뢰하는 히위 족속은 시므온과 레위라는 기만적 인물과 대립.

3) 레위와 시므온이 히위 족속을 살해하다 (34:25-31)

25 제삼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6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27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28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29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30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1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 34:25/ '제삼일': 성읍 방어에 가장 취약한 때.
 '의심하지 않았다(개역개정에는 생략)': 이들의 배반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표현.
 '시므온과 레위': * 디나와 같은 어머니인 레아의 아들들.
 * 레위의 격한 반응은 그 후손들이 여호와 신앙의 주요 변호자가 될 것이라는 전조.
 '칼을 가지고(취하고)': 칼을 '취하고' 누이를 '취함'으로 디나를 '취한' 세겜의 범죄를 응징.
- 34:26/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디나가 자기 의사에 반하여 갇혀 있음을 암시.
- 34:27-29/ '야곱의 여러 아들이... 노략하였으니': 다른 형제들도 약탈에 가담.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 성읍 주민 전체가 세겜의 행동을 묵인한 책임이 있다는 의미.
 '양과 소와...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이들의 소유 전체가 형제의 몰수 대상이었음
 - 복수의 과도함과 이들의 탐욕을 고발.
- 34:30-31/ '너희가 내게 화(아카르)를 끼쳐': '아골(괴로움) 골짜기'와의 연관. 이들의 범죄가 타인에게 괴로움을 끼침.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공격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은유적 표현.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연합된 종족의 공격에 의해 멸족 당할 것을 우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야곱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수치를 용납한 것에 항의.
 - 구혼하며 돈을 제시한 것을 매춘으로 해석함.
 * 야곱은 자기 영광이 이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을 맹세(49:7)
 - 이들의 행위는 야곱의 족장 지위에 대한 공격으로써, 르우벤의 범죄에 필적함.